

# FOCUS

## -건설경기 성장세 지속-

지난 연말을 기점으로 건설경기가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 6월 건설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건축허가가 전년동기대비 76.0%증가하였으며, 건설수주는 전년동기대비 32.6%증가하였다. 건축허가와 건설수주가 작년 2/4분기부터 증가세로 반전된 이후 최근 증가세가 지속되고, 주택부문도 수요 증가에 힘입어 미분양아파트가 꾸준히 감소하고 건설 물량이 증가하는 등 회복세가 지속될 것이라 전망했다.

건축허가와 건설수주가 6개월 평균 50% 이상 증가하고있으며, 건설업 BSI가 최근 상

승세를 지속하는 등 국민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산업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건축허가는 작년 5월 이후 계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건설수주는 작년 9월 이후 계속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 -건설업체 부도율 감소-

지난달 건설업 부도업체수가 10년여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6월 1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2년 5월중 어음부도율 동향'에 따르면 5월의 건설업체 부도업체수는 총 42개사로 지난 91년 9월(41개사) 이후 10년 8개월만에 최저치를 기

[표 1] 건축허가 현황

(단위 : 천㎡, % 전년동기대비)

구분	'98	'99	'00	'01	'01.4	'01.1/4	'2/4	'3/4	'02.1	2	3	4
허가면적	50,965	72,532	81,059	97,717	7,663	15,634	26,290	25,538	9,344	8,295	13,961	13,486
증감율(%)	-55.0	42.3	11.8	20.6	-17.6	-14.0	22.5	20.9	79.6	80.9	138.8	76.0

[표 2] 건축수주현황

(단위 : 10억원, % 전년동기대비)

구분	'98	'99	'00	'01	'01.4	'01.1/4	'2/4	'3/4	'02.1	2	3	4
수주액	47,902	51,136	60,152	67,836	4,964	10,520	17,461	14,825	4,330	5,293	8,754	6,581
증감율(%)	-40.1	6.8	17.6	12.8	4.0	-20.7	2.4	16.2	57.9	50.8	105.0	32.6

※ 대한건설협회 발표자료인

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건설업체의 부도 추이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지난 2000년 건설업의 월평균 부도업체수는 85.4개사에 이르렀으나 지난해에는 68.5개사로 대폭 감소했으며 올 들어서 50.6개사로 다시 감소했다.

최근 추이에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9월 53개, 10월 54개 등 60개사 미만에 머물다가 겨울철을 맞이해 11월 64개, 12월 67개, 올해 1월 69개사로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올해 2월 46개, 3월 50개, 4월 46개에 이어 지난달 최저치인 42개사를 기록 올 들어서 1월을 제외하고 50개사 이하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에 대해 최근의 건설경기 활황과 건설업체의 경영환경 개선 및 은행대출 등 자금공급 규모 증가와 더불어 계절적 성수기 등의 요인들이 작용한 것으로 한은은 분석했다.

한편 지난달 제조업의 부도업체수는 317개사로 전월(311개)에 비해 소폭 증가했으나 지난해 월평균 부도업체수 440개사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어음부도율은 0.04%로 전월(0.08%)에 비해 크게 하락해 지난 90년 11월(0.04%)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 -인천공항 유휴지 개발 본격화-

지난 6월 1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제 5활주로 예정지(83만평)와 신불도지역(26만평) 등 유휴지 2개 사업권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인 클럽 폴라리스와 6월말 실시협약을 맺고 7월부터 개발을 위한 설계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주레미콘과 아주산업, 교보생명, 에이스회원권거래소, 대상, 임광토건 등 10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클럽 폴라리스는 지난 3월 29일 유휴지 사업개발 민간사업자 재모집

에 함께 응모해 오메가프로젝트사를 제치고 2개 사업권을 모두 따냈다.

클럽 폴라리스는 사업계획서에서 신불도 지역에 18홀 규모의 대중골프장과 부대시설을, 제 5활주로 예정지에는 54홀의 골프장과 컨벤션센터 등을 건설하겠다고 제안했으며 2020년까지 토지사용료로 1천475억원을 제시했다.

건교부는 향후 절차가 예정대로 추진되면 2006년 7월부터 유휴지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 -북한 건설사업 활기-

북한은 올해 각지에서 대규모 건설사업이 적극추진됨에 따라 그에 필요한 시멘트의 생산에 큰 관심을 쏟고 있다.

북한은 현재 평양의 3만호 주택과 농촌주택 건설, 중소형수력발전소·염소목장·닭공장·양어장 건설, 총연장 160km의 평남 개천-남포시 태성호 수로공사, 총 9만여 정보의 평양시·남포시·함남도 토지정리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처럼 다양한 건설사업 시행에 따라 내각 건설건재공업성 시멘트연합회사 산하시멘트공장 등은 필요한 시멘트 생산을 위해 활발하게 생산에 나서고 있다.

최명우 시멘트연합회사 부사장은 최근 중앙방송과 인터뷰에서 이 회사 산하 공장의 기술자·노동자들이 여러 경제부문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시멘트의 생산을 늘리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멘트연합회사 산하에는 순천시멘트공장(연간 생산능력 300만t), 상원시멘트공장(200만t), 2.8시멘트공장 등 연간 생산량 100만t 이상의 공장이 많이 집중돼 있고, 이들 공장의 대부분은 당국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컴퓨터와 리모트 컨트롤 시스템생산공정을 갖춰 시멘트 증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석회석 매장량이 1천억t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시멘트 생산량은 90년 613만t으로 정점에 달했다가 91년 이후에는 시설 노후, 전력난 등으로 계속 감소해 98년 315만t으로 떨어지기도 했으나 경제가 호전되기 시작한 99년에는 410만t, 2000년에는 460만t으로 점차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북한 당국은 시멘트산업이 회복 조짐을 보임에 따라 올부터 대형 시멘트공장에 대한 국가투자를 확대하고 해외 수출용 제품 생산에도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증가세는 더욱 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제조물책임(PL)법 7월 1일 시행-

제조물책임(PL)법이 이 달 1일 시행됨에 따라 기업들이 대응책 마련을 위한 막바지 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제조물 결함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제조자가 과실유무에 관계없이 책임을 져야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제품결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생산공정에 보다 신경을 쓰는 한편 테스트포스트팀을 구성, 사업부별 대응태세를 최종 점검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그러나 PL법 적용이 애매한 일부 업종과 경영기반이 취약한 상당수 중소기업들은 대비책이 여전히 불충분한 상황이어서 법 시행으로 고액의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 공방, 경영난 심화 등의 문제점이 우려되고 있다.

가전, 자동차, 철강, 섬유 및 패션 등 제조업계 일각에서는 PL법의 구체적인 내용 및 대응방안에 대한 담당부서 신설과 교육실시를 통하여 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각 업체들은 영업팀, 법무팀, 연

구소 등이 모여 최종제품 생산업자들에게 유해성분, 폭발성, 인화성, 인체유해성 등을 정확히 알리고 오용을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표시방법과 표시문구를 연구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외국 보험사에 재보험을 들 때 보험 약관에 PL 항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PL 보험에도 가입하고 있다.

한편 종합상사는 일반 제조업체들에 비해서는 큰 영향이 없다는 분위기지만 자사명의로 국내에서 팔리는 일부 수입품들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대책을 검토중이다. 또 이미 PL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북미 등에 PL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중소기업 제품을 수출할 경우를 대비, 자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건설업도 마찬가지로 PL법의 일차적 적용대상에서 벗어나 있다는 판단 아래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부동산의 경우 외국에서 PL법 적용대상으로 인정된 사례가 없을 뿐더러 건축물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는 대부분 하자과 관련된 것으로 계약책임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부동산을 구성하는 건축자재, 설비는 제조물에 해당돼 건설업체가 이를 공급받아가공을 했다면 제조물 책임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조심스런 견해도 있다.

현재 중소기업청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중심으로 PL법 관련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중소기업 PL 지원법'의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올초 종업원 5명 이상 300명미만의 중소제조업체 271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PL법 시행과 관련해 사내 전담조직을 구성한 업체는 조사대상의 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PL법과 관련 '교육받은 인원도 없고 전

문인력도 양성되지 않은 상태' 라는 응답이 56.1%로 절반이상을 차지했다.

### - 건설경기 지역간 격차 심화 -

최근 건설경기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지역별, 규모별로 격차는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20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달의 건설업 체감경기지수(BSI)가 3개월째 120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서울과 지방의 격차는 심화되고 있다.

서울의 지난 4월 건설업 체감경기지수는 119.4로 지방의 118.3에 비해 근소한 차이로 앞섰으나 5월에는 서울 120.9, 지방 108.4로 차이가 커졌으며 6월에는 서울 132.8, 지방 118.9로 그 격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또 업체 규모별로도 큰 차이를 보여 4월의 경우 대형건설업체의 체감경기지수는 126.7, 중견업체는 120, 중소기업체는 116이었으나 5월에는 대형업체 142.9, 중견업체 116.1, 중소기업체 107로 바뀌었고 6월 예상지수는 대형업체 150, 중견업체 131.7, 소형업체 115.3으로 격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근 건설업 체감경기 지수가 상승하고 있는 것은 대형업체 또는 서울소재 업체를 중심으로 상승 기대감이 크기 때문"이라며 "업종별로도 최근 주택에 대한 상승 기대감은 큰 반면 토목, 비주택 분야 경기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지방인구의 수도권 유입과 아파트 분양의 호조로 체감경기지수가 높게 나타난 반면, 지방의 경우 인구유출 및 지역정서에 반영하지 못한 건설투자를 자제하는데 요인이 있다고 분석된다.

### -하수슬러지 시멘트 원료로 재활용-

매립하거나 바다에 투기해오던 하수 슬러지의 처리 방법이 대폭 개정되면서 대책을 고민해오던 강원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이 시멘트 원료로 재활용하는 묘안을 찾아냈다.

강원도 춘천시 등 도내 각 시·군은 최근 슬러지 처리를 위한 관계자 협의회를 통해 시멘트 소성로에 넣어 소각한뒤 연료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도내 지자체들은 오는 7-8월께 시멘트 제조회사인 영월 쌍용양회공업(주) 측과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빠르면 9월부터 하수슬러지를 반출할 계획이다.

춘천시의 경우 현재 t당 3만8천9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지역 쓰레기 매립장에 묻던 비용이 운반비를 포함해 4만3천원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쓰레기 매립장 포화상태를 방지하고 소각로 설치 등 민자유치를 통한 시설투자를 할 필요가 없어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 소성로를 거쳐 나온 점토 성분 등은 시멘트 회사가 이용하면서 그동안 버리던 슬러지를 재활용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된다.

한편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2003년 7월 1일부터는 하수 슬러지를 소각하거나 해양에 투기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되고 소각이나 고형화, 재활용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춘천시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시멘트 소성로를 이용할 경우 신규 시설투자에 따른 부담이 전혀 없는데다 안정적으로 하수 슬러지를 처리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 - 생활폐기물 재활용기술 특허주목 -

지난 6월 경북 포항지역의 한 업체가 음식물 쓰레기와 오니등을 사료 및 비료, 시멘트 원료 등으로 재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 특허를 받았다.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이가리 618-1 (주) 비곤산업(대표 성 경.55)에 따르면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생산되는 슬러지에 분말산화칼슘을 적당한 비율로 혼합해 섭씨 150-400도로 간접 가열한 후 칼슘실파이트(CaS)를 혼합해 일나이트와 게르마늄, 황토성분을 첨가하는 과정을 거쳐 양질의 비료를 생산하는데 성공했다.

또 음식물쓰레기와 오니 등에도 천연 광물질을 첨가해 사료 및 비료, 시멘트 원료를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천연 광물질을 첨가해 생산된 비료는 산성화된 토양을 알카리성으로 바꿔 토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회사측 관계자는 밝혔다.

이에 따라 이 회사는 최근 발명특허 제 0314357호(폐기물 이용 비료, 사료 제조방법)와 발명특허 제0337084호(슬러지 이용 비

료 제조방법) 등 2개의 특허를 받아 제품생산 준비에 나섰다.

이 회사는 최근 사업비 50억여원을 들여 부지 2만3100㎡에 첨단시설인 선별기, 혼합기, 건조기, 포장기 등 각종 시설을 갖춘 3천300㎡규모의 공장을 건립한데 이어 지난 4월 17일 포항시에 제품생산에 따른 공장 등록을 마쳤으며, 지난5월 시험 생산을 실시한데 이어 오는 9월부터 1일 100여t의 제품을 생산하는 등 본격 가동에 돌입키로 했다.

포항지역에서는 현재 1일 125t의 음식물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으나 40여t만 사료로 재활용 되고 있을뿐 나머지는 대부분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되는 등 버려지고있어 지하수 등 주변 환경오염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포항시는 연간 4억2천여만원을 들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배출되는 오니와 슬러지 등을 대부분 바다에 버리거나 강원도 모 업체에 시멘트 원료로 위탁처리하고 있다.

비곤산업 관계자는 “대량으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슬러지, 오니 등 각종 생활폐기물을 사료나 비료, 시멘트 원료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어 환경오염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됐다” 고 밝혔다.